

영화 '서치' 박스오피스 역주행 1위, 어떻게 가능했나



새로운 형식 스릴러 · 반전의 반전 쾌감 등 개봉 첫날 3위...SNS 등 입소문의 힘 발휘

입소문의 힘이 통했다. 실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서치'의 박스오피스 역주행 1위를 만들었다. 영화 '서치'(아니쉬 차간티 감독)가 지난 4일 2주째 박스오피스 정상에 굳건히 지키던 박보영·김영광 주연의 '너의 결혼식'(이석근 감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달 29일 개봉한 '서치'는 첫날 3위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개봉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실관객들의 엄청난 입소문을 이끌기 시작했고 주말 2위로 올라섰다. 이후 개봉 6일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사실 '서치'의 이같은 흥행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정식 개봉에 앞서 제34회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19일 전주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시

네마 섹션을 통해 공개됐을 당시 엄청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기 때문이다. 상영 당시 엔딩크레딧이 올라감과 동시에 관객석에서 엄청난 박수가 쏟아져 나오며 전주국제영화제의 최고의 화제작으로 등극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서치'는 어떻게 관객의 비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스크린 라이프? 들도 보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스릴러 '서치'는 스크린 라이프라는 새로운 영화 문법을 시도한 작품.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나선는 다소 익숙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인터넷으로 단서를 모

은는 아버지는 설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OS운영체제 모바일 화면으로만 구성된 파격적인 형식은 단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이 형식은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 출신의 28살 전체 감독 아니쉬 차간티 감독의 환상적인 연출력이 더해져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탄생시켰다. ▶반전의 반전, 스릴러 영화가 줄 수 있는 최대 쾌감 신선한 영화적 문법과 형식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작품이지만, 이 형식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건 단연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스토리다. 스토리가 주는 엄청난 흡입력은 관객들이 러닝타임 내내 주인공 데이빗 킴(존 조)과 함께 범인을 추적해 가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 준다. 여기에 관객의 뒷방수를 제대로 때리는 반전의 반전은

스릴러 영화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쾌감과 영화적 미덕을 선사한다. ▶존 조·미셸라·조셉리·사라손...한인 배우들의 명품 연기 '서치'는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배우들이 '미국에 사는 한인 가족'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서 한국 관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 영화 속에서 한국어와 김지 등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한국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그리고 연기를 실제 한인 배우들이 연기에 더욱 리얼리티를 살렸다. '스타트렉' 시리즈의 슬루 역으로 유명한 존 조가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를 완벽히 소화했고 KBS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도 출연한 바 있는 조셉리, 가희·손담비와 함께 걸그룹 에스블러쉬로도 활동한 바 있는 사라손 등이 배우들이 훌륭한 열연으로 몰입감을 더했다.

김희선·송혜교·박신혜, 하반기 톱여배우의 안방 귀환



배우 김희선 송혜교 박신혜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톱 여배우들이 안방으로 컴백한다. 이름만으로도 화제의 중심에 서는 김희선 송혜교 박신혜가 올 하반기 각자의 작품을 통해 안방극장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특히 세 배우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구가한 한류스타들이 만큼 이들이 이끌 자기작에 대한 관심이 높다. 먼저 1990년대 최고 스타에서 최근 제2의 전성기를 알린 김희선이 tvN 새 주말극 '나인룸'으로 돌아온다. '나인룸'은 사형수 장화사(김해숙 분)와 운명적 비련 변호사 을지해이(김희선 분), 운명의 열쇠를 전 남자 기유진(김영광 분)의 인생리셋 복수극을 그린다. 김희선은 '나인룸'을 통해 승소를 100%의 변호사 을지해이 역을 맡았다. 김희선은 데뷔 후 첫 변호사 연기에 도전하며 이전의 이미지와 달리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냉정한 모

습으로 변신을 예고했다. 특히 KBS2 '프로포즈'(1997), MBC '해바라기'(1998), SBS '토마토'(1999) 등 작품을 통해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던 김희선이 펼칠 색다른 변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JTBC '풀하우스'의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알린 김희선인 만큼 '나인룸'의 모습도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송혜교는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tvN 새 수목극 '남자친구'를 통해 약 2년 만에 대중과 만난다. 특히 '남자친구'는 송중기와 결혼 후 송혜교의 복귀작이기에 제작 단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남자친구'는 정지인의 딸로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구(舊) 재벌가 며느리 차수현(송혜교 분)과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순수 청년 김진혁(박보경 분)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 담은 작품이다. 전작 KBS2 '태양의 후예'(2016)

는 물론 '가을동화'(2000), '풀하우스'(2004), SBS '울인'(2003) 등을 통해 30%가 훌쩍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오랜 시간 '시청률 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송혜교인 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도 남다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인 박보경과 케미에 대한 궁금증도 높기 때문에 두 스타가 선보일 호흡도 관전 포인트다. 20대를 대표하는 톱 여배우 박신혜도 오랜만에 안방 나들이에 나선다. 박신혜는 오는 11월 방송을 앞둔 tvN 새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하 '알함브라')으로 2년 만에 컴백한다. '알함브라'는 투자회사 대표 유진우(현빈 분)가 비즈니스로 스페인 그라나다에 방문하고 정회주(박신혜 분)가 운영하는 오래된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기묘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담는다. 박신혜는 낯선 이국땅에서 할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강한 생활력을 갖게 된 정회주 역을 맡아 극을 이끈다. 전작을 통해 사랑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캐릭터에 감성을 보여 온 박신혜인 만큼 이번 '알함브라'에서도 제 웃을 입은 듯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매작품 배우들과 리얼한 호흡을 보였던 박신혜가 '로코킹' 현빈과 만 들어낼 시너지에도 기대가 높다. 이처럼 '믿고 보는' 여배우들이 하반기 나란히 안방극장 출격을 알리며 시청자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톱 여배우들이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방송계에 신선한 활력이 생기는 분위기이다. 내 작품이 아니라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며 기대감을 더했다.

'불빨간당신' 첫 게스트는 김민준·양희경·최대철



김민준, 양희경, 최대철이 가족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는 11일 첫방송되는 KBS 2TV 새 예능 프로그램 '불빨간당신'은 부모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자식들의 열혈 뒷바라지 관찰기. 평생 자식들의 꿈을 위해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간섭하

기호한 자식들의 이야기다. 부모님의 꿈을 자식이 응원하는 역발상을 통해 따뜻한 웃음과 공감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남치는 예능감,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3MC 이영자, 홍진경, 오상진이 '불빨간당신'에 합류했다. '불빨간당신'이 3MC의 특별한 조합만으로도 관심을 모은 가운데, 이번에는 직접 부모님의 열정에 기쁨을 부여할 게스트 라인업이 공개돼 다시 한 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첫 번째 게스트는 김민준이다. 패션 모델 출신 배우 김민준은 환상적인 키에 남성적인 매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알고 보니 그의 이 같은 매력과 외모는 멋쟁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고 김민준은 '불빨간당신'을 통해 초특급 동안을 자랑하는 70대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을 응원

하려한 배우가 아닌, 가족과 함께 일 때 빛나는 김민준의 소탈함과 웃음이 기대된다. 두 번째 게스트는 양희경과 두 아들이다. 배우 양희경은 오랜 시간 동안 두 아들의 엄마이자 배우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그녀가 조금 늦었지만 자신의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에 나선다고 엄마 양희경과 거꾸집 수준의 두 아들이 등장해 큰 웃음을 줄 예정이다. 푸근하면서도 유쾌한 양희경과 불어빵 두 아들의 맛깔스러운 도전이 공감하다. 세 번째 게스트는 '주말의 박보경'이라 불리며 주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최대철이다. '시청률의 제왕' 최대철이 '불빨간당신'을 통해 본격적으로 예능에 합류한 것. 최대철은 부모님과 함께 출연, 세 가족 중 가장 몽글몽글 이야기를 털어놓을 전망이다. 첫 녹화 때부터 제작진과 3MC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전언이다.

샤이니, 정규6집 합본 에필로그 10일 발매

샤이니(SHINee)의 정규 6집 합본 앨범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필로그('The Story of Light' Epilogue)가 오는 10일 발매된다. 샤이니는 정규 6집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The Story of Light') EP.1, EP.2, EP.3에 수록된 '셀 수 없는(Countless)'까지 총 16곡이 수록된 정규 6집 합본 앨범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필로그를 선보인다. 샤이니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총 3개 앨범으로 구성된 정

규 6집을 순차 공개해왔다. 그동안 '데리러 가(Good Evening)' 'I Want You(아이 원트 유)' '네가 남겨둔 말(Our Page)'로 트리플 타이틀 릴레이 활동을 했다. 이에 완성도 높은 음악과 독보적인 콘셉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합본 앨범은 샤이니의 다채로운 음악 색깔과 감성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만큼 팬들에게는 특별한 가을 선물이 될 전망이다. 이번 앨범에 추가 수록된 신곡

'셀 수 없는(Countless)'은 청량한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 기반의 R&B 곡이다. 뽕뽕 튀는 그루비한 비트 위에 샤이니의 정교한 하모니와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어우러진다. 또한 숫자(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와 한글(가, 나, 다, 라)을 사형사처럼 풀어낸 가사와 연인을 '단어, 문장, 언어'로 점진적으로 빚어 표현한 후렴구가 특색이다. 샤이니의 정규 6집 합본 앨범은 오는 10일 오후 6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전국 음원이 공개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음력 7월 26일)

<p>▶쥐 집안에 작은 각성이 있으나 오후에는 해결돼 심신이 안정되겠다. 메마른 애정 문제도 친구 도움으로 다시 물길에 트인다. 기, 다, 비 성씨는 늦은 귀가를 삼가고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하라. 손재수가 따른다.</p>	<p>▶물고기 새롭게 추진하는 일은 순조로우나 4, 5, 9월생은 과로로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라. 먼 친척이 뜻밖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생길 운이다. 동, 남쪽이 길하다.</p>	<p>▶원숭이 여기저기를 둘러볼 때 애정과 금전적 이득이 있으나 그냥 지나칠 운이다 심신이 피곤하니 집에 일찍 귀가해 편안한 시간을 가지라. 사, 오, 천 성씨는 가까운 친구를 조심하라. 시비를 빚을까 우려된다.</p>
<p>▶사슴 알고 지내던 귀인이 도와줘도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아 금전적인 손실을 보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취미 생활로 기분을 전환하고 완료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씩 해결하라. 3, 5, 9월생은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 듣고 화기애애할 운이다.</p>	<p>▶돼지 새로운 구상을 하느라 여유없이 보내지던 심신은 안정된다. 가을 바람과 함께 임 소식도 들려온다. 금전 손실이 염려되나 주위에 도움 요청을 들어 주면 잘 막을 수 있다. 사, 오, 리 성씨는 언행을 조심하라. 구설에 오른다.</p>	<p>▶물소 한 우물을 파면 작은 것도 커지고, 오해로 인한 문제 역시 해소한다. 1, 9, 11월생은 정신적 피로가 누적한 상태니 기분전환이 필요하다. 손실이 없는 평탄한 하루나 마음은 허전하다.</p>
<p>▶호랑이 남쪽에서 진행하던 일의 희소식이 들린다. 상사에게 인정받는 최상의 하루다. 다만 자만심은 적을 만들 수 있으니 겸손하라. 10, 11, 12월생은 애정에 불만뿐이니 검은색으로 자신감을 나타내라.</p>	<p>▶말 추진 중인 일이 차츰 잘 돼가고, 구상하던 일도 잘 진행된다. 그러나 애정은 허전함으로 배회하는 격이다. 여러 곳에서 도움을 손길이 오니 만사 형통이다. 7, 8, 9월생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자신감을 나타내라.</p>	<p>▶물고기 망설이지 말라. 시간만 흐른다. 구상 중인 것은 실행을 서두르라. 좀 더 시야를 넓혀 활동할 때다. 금전운이 따르니 마음을 넓게 갖고, 어제의 작은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귀인이 나타난다.</p>
<p>▶토끼 모든 면에 앞서가지만, 추진 중인 일은 고비를 넘겨야 한다. 친지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쉽게 풀린다. 2, 8, 12월생 금전 손실이 크니 지출은 되도록 삼가라. 밤길 운전을 조심하라.</p>	<p>▶물소 지체되던 일이 뜻밖에 빨리 이뤄지고 애정적으로 쉽게 성공하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한다. 기, 오, 리 성씨는 사소한 일로 언쟁이 있다. 불만을 갖기에 앞서 원인을 파악하라.</p>	<p>▶원숭이 힘겨워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나 피곤하기만 할 뿐이다. 북쪽 귀인이 돕는다. 7, 8, 12월생은 애정 문제로 고민이 산적하구나. 기분 전환할 겸 여행으로 마음과 육체의 피로를 풀어보라.</p>